사이간덴지 절(西巖殿寺)

이 절은 규슈에서 가장 역사 깊은 사찰 중 하나입니다. 인도에서 온 사이에이(最栄)라는 승려가 726 년에 창건했다고 합니다. 1871 년에 사이간덴지 절은 폐사되었고 산기슭으로 옮겨졌습니다. 새로 출범한 매우 국수주의적인 메이지 정부가 불교를 외국에서 들어온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부정하면서, 과거 수백 년에 걸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불교와 신도를 확실하게 분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참배자들의 바람으로 사이간덴지 절은 1890 년에 재건되었지만, 2016 년 구마모토 지진과 아소산의 화산활동으로 심하게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건물은 2022 년 8 월에 지어진 것입니다.

사이간덴지 절에 있는 본존은 십일면 관음이라 불리는 불교 보살입니다. 이 절 승려들이 읊는 불경의 첫 번째 목적은 신성한 아소산 분화구의 분화를 막는 것입니다. 아소산의 분화는 식수를 오염시키고 벼 수확을 망치며, 소가 먹는 목초를 오염시키는 등 아소 칼데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절 뒤편에 있는 돌길은 예전에 분화구로 올라가는 유일한 경로였습니다. 승려만 정상까지 오르는 것이 허용되었고, 일반인들은 150m 정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다이쇼 시대(1912-1926)까지는 이곳에서 연인들이 결혼 전에 혼인을 약속하는 풍습이 성행했습니다.